

# “총무원장 선거, 평등한 직선제가 해답”

## 12월 3일 조계종 쇠신위 직선제 개선 위한 좌담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위원회(위원장 민은)는 12월 3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인 간선제 대신 직선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날 전국선원수좌회 강설 스님은 제한적 직선제와 전면적 직선제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직선제로의 개정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승남 10년 이상인 중역과 정덕 법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권자는 비구 4,217명, 비구니 4,338명 총 8,609명이다. 전면적 직선제는 견덕, 계덕 이상으로 선거권을 두는 것으로 선거권자 수는 13,116명(비구: 6,458명, 비구니: 6,658명)이다.

강설 스님은 “직선제로 개정되면 선거인단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현행 비구 중심의 선거인단에서 탈피될 수 있으며, 폭 넓은 공의 반영도 가능하다”고 직선제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해당 후보자의 친소관계, 계파정치 극복 △민중적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 △고교계 미디어를 통한 공약 검증 가능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정몽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제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직선제 반대 의견들이 기우(奇遇)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도

한 선거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투표표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은 5,830원이다. 종단 선거도 1인당 5,000원 수준으로 계산하면 10,000명에 5,000만원 수준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대중참여가 흑색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 줄서기와 종단 행정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 소수 권력 독점이 심할 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픈된 선거에서는 심화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전면·제한적 직선제 2안 제시

### 인원 늘어 금권·흑색 선거 차단

### “통합 선거법으로 갈등 해소

### 제대로 된 선거인단 구성 급선무”

비구니 선거인단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비구 스님과 동등하게 선거인단 구성되면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가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재가자의 종단 참여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참여를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한 폐널들 중 일부 스님들은 종단 현실에 직선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행 간선제를 유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직선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제2교구부사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교구부사주지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간선제가 교단에 가장 합당한 선거 운영 방안’이라고 결론을 냈다”며 “수석 사 같은 경우에는 비구니 스님의 수가 비구 스님보다 많다. 재가자 참여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개방했을 경우에 빚어질 문제도 생각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총회의원 일관 스님은 “최근에 개정된 통합선거법 안에서 지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자의 선거 참여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원명 스님은 “사람이 많이 진다고 금권 흑색선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선거인단을 어떻게 잘 뽑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선제 주장 폐널들의 의견들도 거셌다. 특히 수 차례 종단 선거법 관련 토론회로 나섰던 김형남 범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질곡에 빠진 제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라며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간선제에 대해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종단 현행 선거제도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간선제도 잘못 운영되고 있다. 지금 제도는 부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가한 지성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원로 스님들이 끼치는 영향은 크다”며 “원로 스님들도 비구와 비구니 양측이 함께 가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나서서 원로 스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총무원장 선거법 개선을 위한 좌담회’는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눠 진행되며, 간선제 관련 좌담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수행·화합으로 종단 발전”

## 인터뷰-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총무원장은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참종주인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을 발전시키고 사부대중들이 편안히 수행정진에만 임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애국·생활·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수행과 화합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6대 천태종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도정 스님은 12월 6일 서울 관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러 도정 스님은 “천태종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사찰에서 ‘백만독 관음정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1백일간 하루 6시간 정도 법당에 모여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수행인데, 전국 92개 사찰서 1만7천여명이 동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님은 “정치·노동 문제 등에 출가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다문화 등에서도 종교는 얼마든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러 도정 스님은 “취임 1년차인 내년에는 포교당 개설, 사찰부지 매입, 구인사 박물관 운영 관리 등을 통해 내실다지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백만독 관음정진 등

### 전 종도 수행풍토 조성

### 청림이 대통령 제1덕목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도정 스님은 의견을 내비쳤다. 스님은 “누가 되든 약속했던 공약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덕목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청렴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빈말을 남발해서 말뭉치는 사람이 어떻게 청렴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청렴을 국가지도자의 제1 덕목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도정 스님은 “천태종은 강한 결속력만큼은 어느 종단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종단 운영은 총무원장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 표방하는 것이 ‘수행과 화합’인 만큼 12월중으로 법문에 감화돼 출가했는데 은사 스님은 하루종일 고된 울림만 시켰지요. 이어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철야정진을 시켰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조사 스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테니 참고 견디라’고 다독이

니다. 이런 풍토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종단의 안정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수행 풍토 조성을 피력했다.

올 8월에 《마음수행》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던 도정 스님은 특히 “불자들의 마음이 들, 셋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몸은 시간에 따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참선하는 ‘한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스님들이 유난히 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불교는 산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정 스님은 또한 “조사 스님의 법문에 감화돼 출가했는데 은사 스님은 하루종일 고된 울림만 시켰지요. 이어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철야정진을 시켰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조사 스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테니 참고 견디라’고 다독이

시켰죠. 나중에 보니 그게 조사 스님의 수행 방편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수행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혹독했던 경험이 평생을 사는 힘이 됐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도정 스님은 출가자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스님은 “정치·노동 문제 등에 출가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다문화 등에서도 종교는 얼마든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러 도정 스님은 “취임 1년차인 내년에는 포교당 개설, 사찰부지 매입, 구인사 박물관 운영 관리 등을 통해 내실다지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도정 스님은 의견을 내비쳤다. 스님은 “누가 되든 약속했던 공약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덕목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청렴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빈말을 남발해서 말뭉치는 사람이 어떻게 청렴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청렴을 국가지도자의 제1 덕목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도정 스님은 “천태종은 강한 결속력만큼은 어느 종단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종단 운영은 총무원장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 표방하는 것이 ‘수행과 화합’인 만큼 12월중으로 법문에 감화돼 출가했는데 은사 스님은 하루종일 고된 울림만 시켰지요. 이어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철야정진을 시켰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조사 스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테니 참고 견디라’고 다독이

니다. 이런 풍토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종단의 안정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수행 풍토 조성을 피력했다.

올 8월에 《마음수행》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던 도정 스님은 특히 “불자들의 마음이 들, 셋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몸은 시간에 따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참선하는 ‘한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스님들이 유난히 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불교는 산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정 스님은 또한 “조사 스님의 법문에 감화돼 출가했는데 은사 스님은 하루종일 고된 울림만 시켰지요. 이어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철야정진을 시켰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조사 스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테니 참고 견디라’고 다독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연말연시 사찰에서 따뜻하게 보내요

### 문화사업단, 연말 맞이 템플스테이 진행

차차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사찰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연말을 맞아 추억, 나눔, 위로, 만남의 테마를 가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냈을 2030 청춘을 위해서는 ‘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대구 동구 파계사에 위로와 힐링을 담은 ‘청춘(靑春) 템플스테이’를 12월 22-23일, 1월 12-13일 두 번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힐링감성시간, 힐링자자(自慈), ‘새벽의 별’ 명상과 참선 등 고된 시간을 보낸 청춘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있다.

템플스테이 200회를 맞는 서울 종로구 금선사는 200회 동안의 참가자 3천여 명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200회 특별 템플스테이’를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한다. 마음나누기, 범문 듣기, 다도 감상, 타종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금선사 템플스테이를 참가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1만 원의 참가비로 함께 할 수 있는 특전도 있다.

이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한다. 마음나누기, 범문 듣기, 다도 감상, 타종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금선사 템플스테이를 참가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1만 원의 참가비로 함께 할 수 있는 특전도 있다.

주은 연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나눔’ 템플스테이도 준비돼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는 ‘행복 나눔 템플스테이’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차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찰예절, 다담 프로그램과 건강한 사찰음식 시식도 준비했다.

총남 서산 서광사는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 10·27법난 지역순회법회 실시

### 12월 14일 대구서 첫 행사 가저

조계종이 10·27법난 32주년 기념행사로 지역순회법회를 실시한다. 이번 법회는 10·27법난의 조속한 진실규명 및 피해보상 그리고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조계종은 “10·27법난은 최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명예회복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10·27법난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회는 △대구법회 12월 14일 오후 5시 호 텔인터뷰 대구 컨벤션 홀 △부산법회 12월 16일 오후 5시 코모도 호텔 대연회장 △대전 법회 1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 은혜사 주지선거

### 임명 효력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는 10월 30일 법일스님이 제기한 ‘주지후보자선출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제10교구 산

중총회가 10월 25일 둔관스님에 대하여 한 은혜사 주지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1월 30일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31일 둔관스님을 은혜사 주지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둔관스님은 보안 확정까지 법적으로 주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신종일 기자

#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분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종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언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반바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골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랑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패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그램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